

## “물건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활기 먼 전통시장

15일까지 구매금액 30% 돌려줘  
추석 앞두고 양동시장 등 ‘복직’  
상인 “손님 늘어 매출 상승 기대”  
하루 정해진 환급 물량 확대 요청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려고 주말을  
피해 미리 왔습니다. 전통시장이 마트보  
다 저렴하고 활인행사도 많으니 명절에는  
더 찾게 되네요.”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이 모  
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추석 연휴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데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시작되면서 혜택을 받기 위해 시  
장을 찾는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광주시 등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  
지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첫날인 지난 9일 광  
주 서구 양동시장. 늦더위가 이어지는 날  
씨에도 명절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덕  
분인지 시장은 추석 장을 보려는 사람들  
로 북적였다. 지나가는 손님들의 발걸음  
을 붙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상인들의  
얼굴에도 활력이 가득했고, 조금이라  
도 더 크고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그거 말고 이걸로 달라”며 읊조리는 손  
님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바지락 등  
각종 수산물에 진열대 위에 보기 좋게 가  
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곳곳에 ‘진짜 목포  
갈치’, ‘맛있는 참조기’, ‘온누리상품권 사  
용가능 점포’ 등의 문구도 붙어있었다. 상  
인들은 상품이 상하지 않게 얼음을 깔거  
나 손님들의 주문에 따라 생선을 손질하  
느라 분주했다.

반찬집에서는 매대에 각종 반찬을 먹음  
직스럽게 올려둔 채 손님을 불렀고 제수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에서는 전 굽는 냄  
새가 퍼졌다.

상인들도 모처럼 찾아온 분주한 시장  
분위기에 명절 연휴를 앞둔 기대감을 내  
비쳤다.

각종 전 등 제수음식을 판매하는 60대  
김모씨는 “상품권 환급 행사에 맞춰 시장  
을 찾는 어르신들도 많다 보니 확실히 손  
님이 늘어난 게 느껴진다. 또 상품권 행사  
와 상관없이 명절 연휴가 가까워질수록  
시장을 찾는 손님이 많아져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평상시보다  
매출이 30% 정도는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양모(58)씨는 “수  
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이라서 상품권 행사  
기간을 제외하면 명절 2~3일 전부터 매출  
이 상승한다. 평소보다 매출은 30~40%  
이상 상승하고 시장을 찾는 손님도 3배 이  
상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도 명절 분위기를  
만끽했다.

오랜만에 전통시장을 찾았다는 최은옥  
(53)씨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니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난다. 상인들과 흥정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것도 오랜만이라 즐겁다. 전통시장이 대형  
마트보다 저렴하니 제수 음식을 준비할 때  
지출을 줄일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상인들 사이에선 온누리상품권 환급 물  
량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날 남광주시장에서 만난 상인 이승숙  
(62)씨는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받으려  
고 그날만 기다렸다가 일부러 행사 시작  
이후에 오는 사람도 많다. 하루 물량이 정  
해져 있다 보니 상품권이 소진됐다고 하  
면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그냥 가버리거  
도 한다”며 “상품권 물량을 조금 더 늘렸  
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온누리상품권  
행사 기간이나 명절 연휴에 매출이 증가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고 말  
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위한 긴 대기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2면에 계속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정기명 여수시장, 서호영 전남대 여수캠퍼스 수산해양대학장,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문병익 전남일보 이사 등 해양순례 참가자들이 10일 여수항에 정박중인 전남대 실습선 새동백호에서 2026 여수세계식품박람회 성공 기원 ‘섬섬여수-거문도·백도를 가다’ 출정식을 갖고 있다. 나다운 기자

## ‘해양영토순례단’ 여수서 출항... 1박2일 여정 시작

‘2024 섬섬여수-거문도·백도를 가다’  
전남대 실습선 ‘새동백호’ 출정식  
정기명 여수시장 등 격려메시지  
토크콘서트·기념 퍼포먼스 진행

“2024 섬섬여수-거문도·백도를 가다”  
해양 영토 순례가 10일 여수에서 성대한  
출정식과 함께 항해를 시작했다. 이번 행  
사는 ‘2026여수세계식품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해양 영토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서호  
영 전남대 여수캠퍼스 수산해양대학장,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주요 인사  
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110여  
명의 해양 영토 순례단은 항해 중 다양한

해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대한민국의 해  
양 영토 수호 의식을 높이는 데 동참한다.  
이날 출정식은 오전 9시 여수항에 정박  
한 전남대 실습선 ‘새동백호’에서 진행됐  
다. 참가자들은 ‘2024 섬섬여수-거문도·  
백도를 가다’라는 현수막과 기념 티셔츠  
를 착용하고, 메인 갑판에 모여 파이팅을  
외쳤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거문도와 백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요한  
해양 영토이자 미래 가치가 담긴 장소”라  
며 “이번 순례가 해양 영토의 중요성을 다  
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정식을 마친 후 항해가 시작되면서  
오강호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장  
이 진행한 첫 번째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그는 ‘대한민국 해양 영토와 영해 기점’을

주제로 해양 영토의 법적·역사적 중요성  
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에게 해양 영토 수  
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후 2시 30분이 되자 참가자들은 거문  
도와 백도를 배경으로 해양 영토 순례 기  
념 퍼포먼스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대형  
태극기와 현수막을 들고 해양 영토의 중요  
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작성하며, 대한민국  
영해기점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조정란(60) 참가자는 “거문도를 꼭 한  
번 가보고 싶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  
로 가보지 못했다”며 “전남일보에서 이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꼭 참여해 친구  
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전  
남의 아름다운 섬을 눈에 담고 개개인이  
홍보대사가 된다면 2026여수세계식품박  
람회 성공 개최는 틀림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全南日報 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나눔테크는  
생명존중의 실천으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직장과 가정, 어디서든 발생하는 심장마비 사고!  
**AED(자동심장충격기)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AED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ED 역할**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으로 인해 심정지  
응급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심장의 리듬을 회복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응급장비

- 품 목 명 : 저출력심장충격기
- 사용목적 : 전기 충격을 직접 혹은 흡벽에 놓인 전극을 통하여 심장에 보냄으로써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

**구입 및 렌탈 : (주)나눔테크 1577-8515 www.nanoomtech.co.kr**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2022-GN1-28-0016 (유효기간 25.07.28)